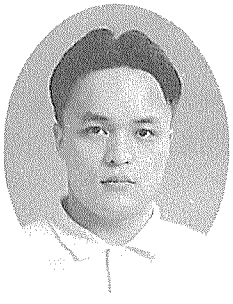
1998년 중국의 석유수출입 분석



김 재 영
〈 북경 석유대학 공업관리학과 석사과정 〉

중국의 석유수입은 1997년 급격하게 증가한 후 1998년에는 크게 하락하여 원유 · 석유제품의 수입량은 4,906.25만톤으로 전년 대비 17.2%가 감소했다. 그 중 원유수입량은 3,547만톤에서 2,732만톤으로, 석유제품 수입량은 2,379.33만톤에서 2,173.99만톤으로 감소해 각각 23%와 8.6% 감소했다. 1998년 중국의 석유수출을 살펴보면 원유 · 석유제품 모두 수출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국제시장 유가하락은 1998년 중국 원유수출을 억제하여 1,560만톤으로 수출량이 감소했다.

원유 · 석유제품 수입감소의 주된 이유는 중국 국내 석유수요가 줄었고 밀수된 석유가 석유제품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SINOPEC 영업부의 통계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경유, 중유, 등유의 소비량은 1997년과 비교해 9,031만톤으로 2.2%가 증가했다. 그 중 중유 수입량은 작년 대비 5,032만톤에서 5,252만톤으로 4.4% 증가했고 등유 소비량도 610만톤으로 0.5% 증가했다. 경유 소비량은 3,169만톤으로 -0.8% 감소했다.

원유수입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석유제품 수입감소는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차기 5년간 중국은 원유 생산량이 특별한 증가가 없거나 원유생산의 저성장이 예상되어 원유 수입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유공장 시설개조와 생산시설 확대로 인해 중동산 고유황 원유 수입은 대폭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1. 원유

1) 원유 수입선 다변화

1998년 중국의 원유수입은 21.3% 감소했지만 그 중 중동산 원유수입은 0.7% 감소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7%에서 61%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입은 546.81만톤으로 41.9%로 감소, 199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98년에 증가된 원유는 중동산 고유황 원유이다. 이

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위주로 한 중동산 고유황 원유 수입은 1997년에 약 490만톤에서 1998년 770만톤까지 증가해 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28%로 증가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 정유공장 대부분이 탈황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된 원유 유종은 그 대부분이 동남아 원유와 중동의 오만산 원유 위주의 저유황 원유였다. 1990년에는 아·태 지역의 저유황 원유가 중국 원유 총 수입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였지만 고유황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5% 정도로 대부분의 중동원유는 예멘과 오만산 저유황 원유였다. 그리고 수입된 고유황 원유는 연해지역의 몇개 정유공장에서 저유황 원유와 혼합하여 정제를 했었다. 1996년 외국기업과 합작한 大連西太平洋石化公司(WEPEC)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고유황 원유 특히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1994년 아·태 지역에서 수입한 저유황 원유는 총 원유 수입의 55%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를 위주로 하는 저유황 원유 수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7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3,547만톤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아·태 지역 원유 총수입 비중은 26.5%로 하락했으며 1998년에는 20%까지 하락했다. 그 중 인도네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의 40%이상에서 1997년에는 20%, 1998년에는 13%까지 감소했다.

2) 중동산 고유황 원유수입의 증가 추세

10년 전 중국 국내에서 고유황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공장은 연간 250만톤을 정제할 수 있는 齊魯石化公司뿐으로써 당시 勝利유전의 유황성분 1.53%의 고유황 원유를 처리했었다.

현재 이 齊魯石化公司는 중국 산동성 청도(靑島) 부근 황도(黃島)항구에 원유 수송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외에도 이와 인접한 鎭海煉化가 이미 고유황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중국 정유공장의 고유황 처리 시설 확대는 중국의 수입원유 유종 선택에 더 큰 폭을 제공할 것이다.

SINOPE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정제능력이 1998년의 1.51억톤에서 2005년에는 2.10억톤으로 증가, 그리고 2010년에는 2.5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중국 서부지역 유전 개발이 특별한 진전이 없다면 2010년에는 중국 원유 생산량은 전체 수요량의 60%만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원유수입으로 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석유자원 분포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2005년에서 2010년에는 중동산 고유황 원유 수입량이 중국 원유 수입 전체의 70~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鎭海鍊化,茂名石化와 齊魯石化는 현재 모두 25만톤급의 오일탱크를 갖추고 있다. 大連西太平洋石化公司(WEPEC)의 현 정제능력과 2000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이상 3개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을 합한다면 중국 고유황 원유처리 능력은 2,850만톤에 다다를 것이다. 만일 上海石化와 揚子石化 등의 정유공장 정제능력까지 포함한다면 고유황 원유처리 능력은 3,650만톤에 이르러 고유황 원유의 중국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원유수출, 지난 15년 이래 최저치 기록

1998년 중국 원유 수출량은 1997년의 1,983만톤에서 1,560만톤으로 줄어 작년 대비 21.3% 감소, 198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은 70년대 초 원유수출을 시작해 첫 10년 동안에는 그 수출량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원유 수출은 중국 외화 수입원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1985년에는 원유수출이 최고점에 달해 3,003만톤에 이르기도 했지만 1986년 국제유가 폭락 이후 원유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1993년 이후에는 원유수출이 1,800~2,000만톤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중국의 원유수출은 일반적으로 매월 평균

150만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수출이 50만톤에도 이르지 못했다. 원유 수출량 감소의 주요한 이유는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오히려 중국 측에게 더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중국 육상원유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근접한 후, 大慶원유의 평균가격이 톤당 인민폐로 829원이었고 그후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중국 원유 수출시 FOB 가격이 1997년의 톤당 1,143원에서 811원으로 하락하여 육상원유의 국내 판매가격 보다 낮았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금년 CNPC는 수출할 원유를 국내에서 가공할 예정이다.

1차 석유위기때인 1973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對日 원유수출은 1978년 "중일장기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간의 교량 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對日 원유수출은 1997년 1,047만톤에서 1998년 795만톤으로 24.1%가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10년만에 對日 원유 수출량이 처음으로 1,000만톤 이하로 떨어진 것이며 동시에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도 현격히 감소했다.

중국 수출용 원유의 유전당 그 비율은 大慶원유 63%, 勝利유전 3% 기타 부분은 해양원유가 34%로, 그 중 大慶원유의 980만톤의 수출량 중 68%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중·일 양국 정부간에 5년 장기 계약으로 1996~2000년에는 매년 對日 원유공급이 600~8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원유 수출은 1,000만톤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유 수출입액(92~98)

(단위 : 만$)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비고[1], %
수입액	172,425	232,341	157,339	235,643	340,655	545,669	319,924	-41.4
비율,%[2]	2.14	2.23	1.36	1.78	2.45	3.83	2.28	
수출액	277,449	240,880	200,031	223,637	278,929	273,413	152,745	-41.1
비율,%[3]	3.27	2.63	1.65	1.50	1.85	1.50	0.83	

1) 1998년과 1997년 비교, 2) 중국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中國海關統計年鑒〉('92~'98)

2. 석유제품

1) 석유제품 수입감소

1998년 석유제품 수입량도 하락했으며 특히 경질중유는 57.9% 하락했다. 국제 원유시장의 저유가 추세와 중국 국내시장의 높은 도매 가격간에 존재하는 큰 가격 차이와 중국 지방 행정관리의 부패로 인한 석유제품 밀수가 범람하여 국가 지주산업인 석유화학과 정유기업에 큰 피해를 주어 정제량 감소와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석유화학·정유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1998년 2월 중순에 중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중유와 경유수입을 금했으며 9월초 다시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國家經濟貿易委員會, 國家海關總署와 對外經濟貿易部 이상의 4부 위원회는 1998년 9월 20일 부터 일시적으로 모든 방식의 경유, 중유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1998년 중유 수입량은 1997년 738만톤에서 310만톤으로 감소했고 중유수입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 석유제품 전체 수입량이 2,380만톤에서 2,174만톤으로 8.6% 하락했다.

과거 10년 동안 중국 석유제품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6% 정도였다. 근래 중국 석유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국내 유전의 1~2%의 미비한 증산으로 인한 원유공급 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체했으며 현재 소비 증가의 약세는 자연히 석유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 남방 연해지역의 석유제품 밀수가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정부는 밀수척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무역형식의 석유제품 (대부분이 중유)의 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SINOPEC 정보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1997년 중유 밀수에서만 그 양이 820만톤에 이른다. 밀수된 연료유와 경유까지 합한다면 그 총 수량은 1,050만톤에 이를 것이다. 1998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범위의 석유제품 밀수척결 운동을 벌였지만 그 밀수된 수량도 1997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1998

년 밀수된 중유 수량은 여전히 500만톤에 이를 것이며 연료유와 경유를 포함한다면 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수입 증가, 석유제품 수입 감소, 정유공장 가동률 향상, 경영개선은 중국 정유업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다. 중국 석유화학그룹은 중유, 연료유와 등유 등의 수입으로 중국 정유공장 가동률이 70%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1998년 SINOPEC의 요구로 중국 정부는 중유 수입쿼터를 늘리지 않았다. 몇 년전 중유 수입쿼터는 400만톤 이상에 다다랐다.

三資企業[1] 경제 특구의 약 300만톤에 이르는 중유 수요를 포함해 중국 중유 수입량은 매년 약 700만톤 정도이다. 이 정도 물량의 중유가 만일 중국 정유공장에서 정제되어 공급된다면 필요 원유는 약 2,000만톤으로 늘어나고 중국 정유공장 가동률은 75%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산 석유제품의 수입증가

싱가포르와 한국은 역대로 對중국 석유제품 주요 수출국이었다. 최근 몇 년동안 한국에서 수입된 석유제품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싱가포르산 석유제품 비중이 줄고 있다. 1997년에 24%를 차지하던 한국산 석유제품이 1998년 중국 수입 석유제품 중 42%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산 석유제품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41%에서 34%로 떨어졌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석유제품의 사장점유율이 576만톤으로 120% 증가한 후 1998년에는 917만톤으로 59%가 증가했다. 그중 76%가 연료유이며 나머지는 중유와 항공유이다. 1998년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연료유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 344만톤에서 698만톤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나 중국 연료유 총수입의 증가는 2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전체 석유제품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에서 수입한 항공유는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경질중유 수입도 전체물량의 58%가 감소한 반면 한국산 경질중유는 수입이 42% 증가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정부의 일시적인 중유 · 경유 수입금지 조치로 싱가포르의 對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감소했다. 1998년 싱가포르 석유제품 수입은 1997년의 979만톤에서 749만톤으로 감소해 1/4 감소했지만 중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주요 수입선은 싱가포르로 1998년 전체 중국 수입량의 각각 59.1%와 99.6%를 차지했다.

3) 석유제품의 밀수증가

중국 석유 · 석유화학 업계에게 석유시장의 수급에 있어 중국 동남 연해지역의 석유제품 밀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1992년 중국의 석유제품시장 개방이후 외국산과 중국산 석유제품의 현저한 가격 차이는 중국 연해지역의 밀수를 자극시켜 그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2년 국제시장의 유가하락 후, 석유제품 밀수는 더 큰 이익확보의 기회를 주었다. 초기의 밀수형태는 단순한 밀수선을 이용한 형태였으나 지금은 가짜 수입허가증, 비준문서, 상품 · 상품량의 허위보고 등을 통해 밀수를 하고 있다. 중유를 연료유로 속여 수입하거나 연료와 중유의 혼합물을 수입해 다시 정제과정을 통해 경유를 얻는 방식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외에 석유제품 밀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수부문의 예속회사들이 밀수에 참여하고 있어 그 밀수 방법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고 밀수

1) 외국기업과의 합자(合資), 합작(合作) 그리고 외국기업의 독자(獨資) 기업을 총괄하여 三資企業이라고 한다.

척결 시행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94~1995년 중국세관에서 압수한 중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은 20여만톤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밀수된 석유제품은 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1997년 중국 정유공장에서 정제한 경유가 인민폐 1,900원일때 국제시장 경유가격은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해 밀수는 더 심해졌다.

작년 SINOPEC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과 1997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과 러시아 등의 對중국 중유 수출은 각각 940만톤과 1,490만톤이었다. 그러나 중국 세관에서 신고된 중유는 단지 각각 406만톤과 670만톤이었다. 중국세관과 외국 통계자료에는 각각 530만톤과 820만톤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 연료유와 경유도 단지 그 수량이 적을 뿐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對중국 중유수출의 외국통계와
중국세관 통계수치 비교(96~97)

(단위 : 만톤)

	경질중유		연료유		경유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싱가포르	106.8	114.1	146.2	69.0	24.9	29.0
일본	75.2	149.3	131.1	239.3	2.4	14.2
한국	155.5	512.5	172.1	550.1	0.5	4.1
홍콩	598.3	710.7	221.0	242.4	7.4	8.4
외국통계합계	935.8	1,486.6	670.4	1,100.8	35.2	55.7
중국세관통계	406.4	669.5	762.3	914.1	6.8	7.3
차액	529.4	817.1	-91.9	186.7	28.4	48.4

자료 : SINOPEC 정보센터

이 조사는 중국 석유제품 밀수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97년 이후 중국 국내 석유시장에는 공급과잉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1998년에는 더욱 악화돼 재고율 증가, 가격 하락 등 중국 정유기업의 피해는 막심했다. 이뿐 아니라 판매부진과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하락시켰고 이는 상류부문에도 큰 영향을 주어 1998년 1/4분기 大慶·勝利·遼河 등 주요 유전에서 3,000개가 넘는 유정이 폐쇄되는 등 석유·석유화학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SINOPEC은 상반기에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밀수된 저가 석유제품과 화공연료는 석유제품 판매부진의 주요한 원인이다. 중국정부의 주요세원인 석유·석유화학 기업의 이와 같은 심각한 손해는 중국 국민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밀수타결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8년 상반기에 최소 300만톤의 중유가 밀수된 것으로 예상된다. 6%의 수입관세와 톤당 117.60원의 소비세와 17%의 증치세(增值稅)를 계산해 본다면 밀수된 중유는 톤당 인민폐 500원을 탈세하게 한다. 예를 들어 3,000톤의 중유 유조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탈세액은 인민폐 40억원의 탈세가 이루어진 셈이다.

작년 7월 중국 국무원의 전국 밀수타결 공작회의 후 전국적인 밀수척결 운동이 시행되었는데 특히 석유제품과 화공원료의 밀수는 타결 중점대상이 되었다. 중국 전국 세관에 1~8월에 압수된 1,043건의 밀수건중 석유제품 밀수건은 102건으로 약 10%를 차지해 인민폐 4.76억원에 해당되는 28.56만톤을 압수했다. 압수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밀수업자들에게는 위협적이어서 밀수는 조금씩 억제되었다. 그러나 단지 그 수법이 바뀌어 규모가 작은 이른바 '개미군단' 식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거액의 이윤과 행정기구의 허술한 관리는 밀수업자들로 계속적인 모험을 하게 하여 밀수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이미 중국 동남 연해지역 소규모 석유제품 밀수척결 운동을 결정했다. 작년 말 중국정부는 밀수단속 전문 경찰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밀수단속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한시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중국 석유 산업의 흥망은 중국세관이 어떻게 밀수를 척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